

# 종교는 근본정신 잃게 되면 타락한다



성태웅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 ④9 오계국 요괴를 물리치는 손오공

금각, 은각대왕을 물리쳤네.  
'이름 따먹기' 정병의 관문을 넘어섰네.  
손오공, 이제는 이름에 대한 집착도 넘어섰는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제 남길 것도 없어졌는가?  
아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름은 실제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니  
실제도 헛된 것이어늘 하물며 이름이라!  
갈 길을 그져 갈뿐, 무엇을 남기려 하랴.  
서역에의 길은 아직도 멀어라.  
떠나 온 땅에 그리움도 깊어라.  
이 때 마침 딱하니 커다란 사찰이 나타나네.  
보림사라 하는 절이로다.  
그런데 주지 스님 심보가 고약하여  
일행의 행색을 보고 푸대접하다  
손오공의 행패에 기겁을 하여  
손발이 닳도록 빌고 빌고, 적사 대접...  
모처럼 편안한 잠자리에 현장법사 향수병이 도져  
달 쳐다보다 불경 외우다-  
그런데 음산한 바람 일어나고  
온몸에 물을 툭툭 흘리는 유령이 등장하신다.  
가까운 오계국이라는 나라의 임금님 유령  
오래 가물에 헤쳐처럼 등장하여  
3자 넘는 비를 버리게 한 도력 높은 도사  
의형제까지 맺으며 대접을 했지만  
술법을 부려 왕을 우물에 밀어 넣어 죽이곤  
왕으로 둔갑하여 행세를 하고 있단다.  
이 원통함을 알아달라고 하소연하니  
자비심 넘치는 현장법사 손오공을 믿고 청원점수!  
결국 어려운 집은 손오공에게 떨어졌네!  
그런데 손오공도 싫은 일은 아니구나.  
신바람이 나서 일을 처리한다.  
유령도 막무가내로 일을 맡길 것은 아니고  
증거품이 될 수 있는 백옥홀을 남기고  
왕후의 꿈에 현몽하여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손오공, 우선 래자와 은밀히 소통하여  
유령이 남기고 간 증거품으로 요괴의 음모를 밝  
히니 래자가 황후를 만나보고 확인을 갖게 된다.  
몇 년 동안 몸이 얼음처럼 차디차고  
부부간의 가장 즐거운 일도 없었다 하네.  
이제 남은 일은 래자와 힘을 합쳐  
요괴의 정체를 밝히고 물리치는 것!  
현장법사를 설득하고 저팔계를 끄드린다.  
듣자니 요괴에게 굉장한 보물 있단다.  
보물 훔치러 가자!  
저팔계 육심이 동하여 따라나선다.  
궁정으로 숨어들어 왕을 빠뜨린 우물 있던 자리  
찾아가니 우물 메우고 파초를 심어 놓았구나.  
술법으로 흙 걷어내고, 팔계 육심 부추겨 여의  
봉 키워 늘어서리고 팔계를 우물 속으로 버려



그림·최주현

보낸다.  
여차저차 우여곡절...  
왕의 시체를 건져버는데  
몇 년이나 지났는데도 용왕의 보살핌으로  
시체가 전혀 손상되지 않았네.  
손오공에게 속아 결국 시체 짊어지고 돌아오게 된  
저팔계, 복수심에 불타 현장법사를 충동질한다.  
손오공이 왕을 살려낼 능력이 있는데  
귀찮아 안하는 것이라고...  
귀찮은 현장법사 손오공을 몰아붙인다.  
긴고주까지 외워대며 왕 살려버라 몰아붙인다.  
애고고, 불쌍한 손오공-  
결국 하늘 세계로 올라 태상노군에게서  
구원환혼단을 얻어낸다.  
물론 태상노군이 그냥 주었을 리가 없지.  
안 주었다가는 무슨 후환이 있을까 걱정되어  
할 수 없이 안 할 것이지만...  
공갈능력도 능력은 능력!  
그리하여 왕을 소생시키고,  
여차저차 우여곡절...  
요괴를 때려잡으려는 순간!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금 예측 가능?  
판---, 보살님 등장하신다.  
이번에는 문수보살님일세.  
손오공 잠깐! 죽이면 안돼돼돼돼...!

## 대찰 보림사의 타락상 묘사 고발 일환으로 서유기 작성 "대표자 위계에 종교위상 달려"

아니 또 왜요?  
아 이번의 사건, 미리 예정된 부처님의 안배란다.  
내가 예전에 승려로 화신하여 오계국에 들렀었  
는데 왕을 만나서 좀 듣기 싫은 소릴 했다고 왕  
이 나를 3일간 우물에 쳐박았던 일이 있었지. 그  
과보로 왕이 3년간 우물 속에 쳐박혀 있었던 것  
이야.  
그리고 그 요괴는 내가 타는 사자인데  
인과응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차출된 것이고!  
음... 거세된 사자이니거 왕비의 정절은 걱정 말  
고...  
애고고, 그런데 왜 꼭 그런 일들을  
우리 가는 앞길에 벌이는 거예요!!!  
요괴 잡는 거야 재미있다 하지만  
뒤가 너무 허무하잖나요!  
하하하! 너무 그러지 말아라. 다 너희들 키워주

려는 깊은 뜻에서 나온 일이라단다.  
이런 이야기가 오갈 듯 한 장면...  
요괴잡던 손오공 보살 쳐다보기  
또 한 번 일어나지만, 그래도 해피 엔드!  
은 나라의 거창한 환송을 뒤에 두고  
침차 서역으로 떠나느구나-

손오공, 아니 현장법사의 경지가 한층 더 깊어  
졌겠지요? 이름의 관문을 넘어섰으니, 어지간한 유  
혹에는 흔들리지 않겠지요? 아, 그럼 재미가 없단구  
요? 걱정 마세요. 앞에서 말했듯이 손오공 여전히  
까불까불, 저팔계 침 질질(무엇이 침 흘리는지는  
아시지요?), 사오정 끄덕끄덕...그러면서 갈테니  
까요. 그래도 이제 꽤 온 것 같은데...아직 멀었  
나구요?  
예,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한 반쯤 왔나 싶네  
요. 현장법사가 향수병도 도지고 힘에 겹기도 하  
여 한탄을 하면서 손오공에게 그렇게 묻지요, 손  
오공 "아직 문 밖에도 안 나왔습니다!"하고 매몰  
차게 말하지만, 문 밖은 훨씬 벗어났어요. 이제 곧  
화엄산 나올 테니 그래도 꽤 많이 온 셈입니다. 그  
렇지만 일행들 여정에 지칠 만도 할 때죠. 그래서  
현장법사가 푸념도 하고, 손오공은 마음 약해지  
지 말라고 다그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 마침 큰 절이 나타나지요? 보림사라

는 승려만 해도 몇 백이 있는 큰 가람이네요. 그  
래서 현장법사 반갑게 달려가 머물기를 청하  
는데... 이 절 주지스님 행태가 참 불만해요. 현장법  
사의 팔공을 보아하니 돈 나을 구석은 하나도 없  
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 긴  
여정에 무엇이 남아나겠어요? 옷도 떨어지고 신  
발도 해지고, 사막 먼지는 가득 뒤집어쓴 비랑깽  
이 모습일 수밖에요. 현장법사를 안내해 온 지객  
승한테 버럭 버럭 소리를 지르고, 현장법사한테  
도 모욕을 주지요. 복도 구석에서 찌그러져 자던  
지 말든지 하라는데... 절을 안 만났으면 몰라도  
절을 만났는데 이런 푸대접을 받으니 얼마나 서  
럽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니 손오공 일행  
이 금방 눈치를 채지요. 손오공이 가만히 있을 수  
가 있나요. 당장 현장법사를 대신해 달려 나가 한  
바탕 휘젓는 거죠. 워낙 생김새가 흉악한데다 여  
의봉 크고 굵게 키워서 돌아자 한번 툭 건드리니  
돌사자 완전 가루! 박살이 아니라 가루예요 가루!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  
리일까요? 완전히 공포에 질려 온 절의 스님들 모  
아서 영접을 하고 난리굿을 피우게 되죠.

앞의 흑룡요괴 이야기 때 보셨지요? 주지스님이  
현장법사의 금란가사에 눈이 멀어 일행을 태워  
죽이려고 한 일. 여기 주지는 그렇게 악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출가 승려라고 보기에는 너무 속  
물적인 모습이 쏙쏙 흐르네요. 이런 이야기가 종  
종 나오는 것을 보면 서유기 저자인 오승은이 당  
시의 불교를 보는 눈이 결코 굵지만은 않았던 것  
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당대의 불교는 많은  
타락상을 보이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물론 태종  
때는 탈했는지 몰라도, 얼마 시대가 뒤떨어지지  
않은 측천무후 시대에만 해도 아주 심한 타락상  
을 보이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많  
은 소유를 하면서 무소유의 정신을 내던져 버리  
고 성적인 측면에서의 타락도 이루 말할 수 없었  
다는 자료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서유기의 무  
대가 되는 그 당시에요 그랬다면, 거의 천년 뒤라  
고 할 수 있는 오승은의 시대에는 또 어땠겠어요?  
종교가 그 근본정신을 잃지 않고 있을 때는 참으  
로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 또 타락했을 때는 그  
만큼 추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의 중심이 되  
는 사람들에 그 위상과 역할이 결정되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관음선원의 주지스님이나 이 보림  
사의 주지스님은 잘못된 종교인의 모습을 적나  
라하게 드러내고 있지요. 그건 바로 서유기 저자  
오승은의 당시 불교에 대한 고발이라 할 수 있겠  
습니다.  
아무튼 손오공의 활약(?)으로 대접을 받아가며  
머물게 된 보림사에서 현장법사가 유령과 면담을  
하게 되네요. 유령 상담사 역할이냐고요? 아니요,  
그냥 귀신 만난다구요. 그런데 나칠게냐, 귀신이  
라니 안색이 바뀌시네요. 귀신이라면 질색이냐구  
요? 헛, 꽤 얼골 가죽도 두텁고 하여, 귀신같은 것  
도 전혀 겁낼 것 같지 않은 분이 이상하군요. 재미  
있네요. 다음 시간에는 나칠게냐 슬슬 놀려가면  
서 귀신 이야기나 진진하게 해 볼까요?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PC칩 밀납양초 공장으로 장엄한 법당

사찰에 설치된 실외 양초 공양집

실외 양초 공양집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칩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 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소이(SOY) 왁스 양초 new  
미국산 LOTUS 연꽃 양초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늘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φ × 18 mm  
연소시간 : 60 ~ 70시간

일본 직수입 향

심산자, 관단향, 후리지아, 라일락향, 밀감향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www.shcandle.com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장경분)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곡길 131-14